

자막번역의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 The Wolf of Wall Street를 중심으로*

박 명 수
(상명대)

1. 서론

‘번역은 반역’이라는 흔한 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번역은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출발 언어(source language) 속에 존재하는 문화, 사회, 역사, 관습 등의 광범위한 요소들을 도착언어(target language) 문화권에 잘 어울리는 대응어로 바꾸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렇듯 불가능해 보이는 번역은 언어능력을 가졌다고 아무나 작가나 시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외국어 능력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도정일 2016). 은유, 연어, 속담, 유머, 욕 등과 같은 문화요소들로 인해 번역사들은 밤잠을 설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비록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사들은 고통, 한숨, 피곤의 과정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 때문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에 번역이 매력적이기도 하다.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의 경우 번역 텍스트의 성격상 문학번역이나 전문번역에 비해 출발텍스트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코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이 중에서 욕의 경우,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실제 번역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번역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욕과 같은 비속어에 오염된 우리말, 욕설에 중독된 청소년, 일상화된 언어폭력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욕은 반드시 써야 하는 언어의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일부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만 4세부터 욕을 사용하기 시작하며(Jay 199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이 친구들과 간의 대화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명희 2011). 욕설과 같은 금기 언어(taboo language)는 기독교 관점에서 불경스럽거나 성과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외설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Mohr 2013). 이러한 욕설을 통해 우리는 주로 분노 또는 놀라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Andersson 2004). 이와 동시에 욕설은 친한 친구들끼리 친밀함이 묻어나는 말장난으로, 좌절,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핑커(Pinker 2007)는 인간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방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더해 행동의 묘사, 관용적인 표현, 감정표현의 강조 그리고 감정의 정신적 해소 차원으로도 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욕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자동차의 경적(the horn on your car)” 사용으로 비유된다. 이러한 언어의 경적을 사용하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욕이 과연 의도대로 적절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본 연구는 출발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출시한 영화 중에서 가장 욕이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영화인 *The Wolf of Wall Street*¹⁾의 자막번역을 토대로 욕 번역의 실태와 전략을 분석했다.

1) 단일 영화에서 가장 욕이 많이 사용된 영화로 201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 영화에는 총 506차례 욕(f-word expletive)이 등장하는데, 분당 2.81회 욕이 사용되었다.

2. 선행연구 분석

욕은 일반적으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라는 뜻을 갖는다. 영상물 번역 자막으로 비어, 속어, 욕설 등은 금기시된다. 극장용 영화의 경우에는 출입부터 나이 제한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시청 대상이 구분되지만,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커 방송심의 규정상 비어, 속어, 욕설 등을 더 심하게 통제한다. 선행연구 분석에 앞서 자막에서 금기어(taboo words)로 여겨지는 비어, 속어, 욕설의 정의를 살펴본다.

2.1 용어 정의: 금기어, 비어, 속어, 욕설, swearwords

흔히 금기어로 언급되는 비어, 속어, 욕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비어는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며,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²⁾로 풀이되어 사실상 비어와 속어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쳐서 ‘비속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이선영(2015)은 비어와 속어는 욕설과 의미도 다르고, 다른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어는 평어와 대조되는 개념이고, 속어는 보통어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욕설 자체에 비속성이 있지만, 비속어와 달리 대응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보통어나 평어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실제 금지대상은 비속어가 아니라 욕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선(2012)은 금기성이 강한 비속어라는 의미로 ‘금기 비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성, 신체 부위 및 배설물, 욕설 세 가지 금기 영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도 했다. 우리말의 욕설을 분류한 최초의 연구자라 할 수 있는 신기상(1992)은 사람을 지칭하는 욕설, 인체에 대한 욕설, 동물로 비하하는 욕설, 성과 관련된 욕설, 남의 행실, 성질을 비난하는 서술성의 욕설 등으로 분류했는데, 그 분류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각 욕설의 출현빈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국어 관련 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front=7E3AD60662D8644BCBF470140F4C2142?mn_id=60&qna_seq=143213&pageIndex=1

방송 언어의 사용 실태를 분석한 손범규(2010)는 성별, 연령, 지역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 외모, 성격 등과 관련된 인격 모독 표현, 폭력적 표현, 비속어, 욕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품격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분석 대상 방송프로그램에서 비속어가 7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은어, 비문법적 표현을 더 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방송의 저품격 언어를 분석한 홍종선(2013)은 20개 드라마 240회분을 토대로 총 4,604회 저품격 언어가 출현했고, 이 중에서 비속어가 1,331회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비속어는 위에서 언급한 비어, 속어, 욕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에(이선영 2015; 장경희 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본 연구에서 ‘비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에서 욕에 해당하는 표현은 swearwords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에 해당하는 bad language, foul language, coarse language, taboo words, vulgar words, cursing, cussing 등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1972년 미국의 코메디언 조지 칼린(George Carlin)은 ‘shit, piss, fuck, cunt, cocksucker, motherfucker, tits’를 방송에서 “TV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7가지 단어”로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이들 단어는 여전히 방송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로 간주한다. 이들 금기어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Anderson & Trudgill 1911). 첫째, ‘bugger’ ‘shit’과 같은 섹스와 배설과 관련있는 비속어, 둘째, ‘Christ’ ‘Jesus’와 같이 기독교와 관련 있는 비속어, 그리고 셋째, ‘bitch’ ‘cow’와 같이 남을 동물에 비하하는 비속어로 구분했다.

베드나렉(Bednarek 2014)은 38개 미국 TV 드라마를 분석해 ‘fuck, god, hell, ass, shit, damn, bitch, piss, crap, screw’를 가장 자주 사용되는 10가지 비속어로 꼽았다.

〈표 1〉 비속어 주제별 분류

비속어 기원	출현빈도	출현 드라마
종교 (god, hell, damn, lord, Jesus, Christ)	308	37
배설(piss, crap, shit)	115	24
성행위(screw, fuck)	186	18
금기 신체부위(ass, dick, prick)	97	21
동물(bitch)	39	16

위의 <표 1>은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의 기원별 출현빈도를 정리한 것이다(Bednarek 2014). 이를 토대로 볼 때 가장 출현빈도가 잦은 것이 기독교와 연관된 종교기반 비속어이고 그다음으로 성행위와 연관된 비속어,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배설과 관련된 비속어 순이다.

2.2 비속어 번역 연구

욕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권장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언어의 일부분이다(박명수 2016; Fägersten 2012; McEnergy & Xiao 2004). 욕과 같은 비속어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번역사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왜냐하면, 비속어에는 해당 언어의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이 녹아있기 때문이며, 욕을 번역하려면 해당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회, 역사적 맥락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박명수 2016). 영상물 텍스트에 나오는 비속어를 자막으로 번역할 때 번역사들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일종의 관행이나 기본적인 번역 상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에 발간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블 방송에서도 거의 같이 따르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자막으로 방송해서는 안 되며,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사 중 노골적인 욕설이나 직접적인 성애 표현은 의미 전달이 가능한 수준에서 순화하여 표기해야 한다.

현실 세상의 언어생활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등장인물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개성을 부여하는 비속어는 영상물에 맛을 더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원래 영상물의 의도대로 충실하게 재현되어야 한다(한미선 2012). 그러나 위의 지침처럼 비속어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자막처리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순화하다 보니 제대로 맛깔스러운 욕다운 자막이 없고(박명수 2016), 실제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에서 자막으로 허용되는 비속어는 젠장, 제기랄, 빌어먹을, 망할, 우라질, 미친놈, 개자식,

엇 먹어 정도이다(함혜숙 2011). 영상물에 등장하는 비속어가 귀로 분명 들리지만, 자막으로 처리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러한 비속어가 환기하는 감정의 강도가 외국어보다 모국어로 느껴지는 비속어의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Dewaele 2004; Jay 1992; Jay & Janschewitz 2008).

최근 들어 비속어 연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영상물의 비속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비속어 번역 연구는 크게 비속어 번역 사례, 유형, 또는 전략 분석(김가희, 박윤희 2013; 박성철, Kelpin, 최경인 2017; 최진실 2016; 한미선 2011, 2012)과 비속어 번역결과에 대한 수용도 분석(김가희 & 박윤희 2013; 박기성, 최진실, 하지현, & 전지현 2017; 전지현, 최진실, & 박기성 2017)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미선(2012)은 우리나라에 출시된 DVD 영화 30편의 원문과 번역문을 토대로 원문대비 번역 결과물의 격식변화를 상승, 유지, 하락의 3가지 형태로 살펴보았는데, 비속어 중에서 성 관련 유형과 신체 부위 및 배설 관련 유형의 경우 원문보다 어휘의 격식이 상승한 경우가 각각 78%, 6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욕설의 경우에는 유지형태의 번역이 61%정도, 그다음으로 상승이 3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미선(2012)은 성에 대한 태도가 차츰 개방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골적인 성적 표현에 대해 꺼리기 때문이고, 욕설의 경우에는 성이나 금기 신체 부위, 배설물 관련 어휘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원문과 유사한 격식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영화를 독일어로 자막 번역한 비속어 번역전략 연구에서(박성철, Kelpin, 최경인 2017), 이들 연구자는 ‘회피, 유지, 완화, 강화’의 4가지 유형으로 번역전략을 분석하였다. 비속어 번역에서 완화와 회피전략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원문 충실성보다 도착어에서의 수용도가 큰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비속어 번역의 전략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소수에 불과한데 특히 이들 연구는 기존 번역전략 연구에서 거론된 다양한 번역전략을 해당 연구에서 몇 가지로 선택해 진행했다. <표 2>는 번역전략 연구에서 많은 학자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비네이와 다벨넷(Vinay & Darbelnet 1958; 1995)의 7가지 번역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크게 단어 직역(direct translation)의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 대 단어(word-for-word) 번역전략과 의역(oblique translation)으로 구분된다.

〈표 2〉 Vinay와 Darbelnet의 7가지 번역전략

직접번역(direct translation)	간접번역(oblique translation)
차용(borrowing)	치환(transposition)
모사(oblique)	변조(modu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등가(equivalence)
	번안(adaptation)

〈표 3〉 영상자막번역 전략 예시

Nedergaard-Larsen (1993)	Diaz Cintas & Remael (2007)	Pedersen (2011)
전이(transfer)	차용(loan)	보존(retention)
직역(direct translation)	모사(calque)	구체화(specification)
선명화(explicitation)	선명화(explicitation)	직역(direct translation)
변환(paraphrase)	대체(substitution)	일반화(generalization)
번안(adaptation)	치환(transposition)	대체(substitution)
생략(omission)	어휘 재구성(lexical recreation)	생략(omission)
	보상(compensation)	공식등가(official equivalent)
	생략(omission)	
	첨가(addition)	

위에서 설명한 비네이와 다벨넷의 연구는 번역전략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어 왔지만, 비속어 번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비속어 번역전략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문 장르의 성격에 따라 특정 번역전략 선택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eppihalme 2011). 번역 장르에 따른 사용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네이와 다벨넷의 모델을 수정, 보완한 영상번역 전략을 제시한 연구로 <표 3>에 요약한 네더가드-라센(Nedergaard-Larsen 1993)과 디아즈 신타스와 리마엘(Diaz Cintas & Remael 2007)과 페더슨(Pedersen 2011)을 들 수 있다.³⁾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번역전략을 확대, 축

3) Yuan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subtitling of sexual taboo from English to Chinese”의 내용을 참고했다.

소, 변형하고 있지만,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용어로 설명해 혼동을 초래한다(조재범 2017). 위에 소개한 번역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원문을 그대로 따르는 보존, 원문의 내용을 목표문화권의 수용성을 고려해 변형하는 대체, 영상물에서 자막번역의 응축(condensation)과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번역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한 영화는 마틴 스코세이지(Martin Scorsese) 감독이 2014년에 출시한 *The Wolf of Wall Street*이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단일 영화에서 가장 많은 비속어 사용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⁴⁾ 이 영화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속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비속어 자막번역에 어떤 번역전략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위키피디아(Wikipedia, 2014)에 따르면 이 영화에 f-word 종류의 비속어가 총 506회 등장한다고 주장하고, 위크먼(Wickman 2014)의 분석에 따르면 544회로, 그리고 f-word의 변형된 형태와 다른 비속어를 모두 분석한 크루즈(Cruz 2014)는 569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비속어의 종류를 달리 분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작업으로 대본에서 빈도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데 부적합한 어휘목록⁵⁾을 기준으로 영화 텍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비속어를 추출한 후, 해당 비속어의 총 빈도수를 코퍼스 분석도구인 AntConc를 사용해 분석하고, 모든 비속어를 평

4) 기네스 세계 기록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f-word expletive가 총 506회 사용되었고, 일분당 2.81번에 해당한다고 한다.

<http://www.guinnessworldrecords.com/news/2014/1/how-the-wolf-of-wall-street-broke-movie-swearing-record-54478/>

5) 이 목록은 웹 개발자들이 건전한 사용과 검색문화를 위해 일종의 필터장치로 사용하는 목록이다. 이 목록은 절대적이거나와벽한 것이 아니고, 필요시 수정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https://www.freewebheaders.com/full-list-of-bad-words-banned-by-google/>

커(Pinker 2007)의 5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했다.

3.2 분석 기준

핑커(Pinker 2007)는 사람들이 욕설 등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아래 <표 4>에서처럼 크게 5가지로 설명했다. 묘사용 비속어는 어휘의 문자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칭하며, 관용적 비속어는 습관이나 버릇처럼 비속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모욕적 비속어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비속어이며, 강조용 비속어는 비속어를 이용해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정화용 비속어는 자신의 감정을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주로 혼잣말처럼 사용된다.

<표 4> 비속어 사용 유형

유형	예제	비고
묘사용 비속어(descriptive swearing)	Let's fuck	
관용적 비속어(idiomatic swearing)	It's fucked up.	
모욕적 비속어(abusive swearing)	Fuck you, motherfucker!	
강조용 비속어(emphatic swearing)	It's fucking amazing	
정화용 비속어(cathartic swearing)	Fuck!	

이들 5가지 분류를 토대로 본 영화에 사용된 비속어의 사용 유형을 분석하고, 비속어 번역전략의 분석 기준으로 앞서 <표 3>에서 언급한 페더슨(Pederson 2011)의 7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많은 학자가 번역전략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를 해왔으나, 페더슨의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이 전략이 100편에 달하는 영어권 영화와 TV 프로그램 원본과 스칸디나비아어 자막번역 텍스트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4. 결과

The Wolf of Wall Street 영화에 등장하는 비속어의 종류와 빈도수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이들 비속어의 사용 유형, 그리고 비속어 번역전략에 대한 분석의 순서로 결과를 제시한다.

4.1 비속어 출현 빈도 및 용례 분석

분석대상 영화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 AntConc에서 전체 어휘와 비속어를 분석했다. 아래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이 영화에는 총 50가지 비속어가 영화 전체에 808회 사용되었고, 이 중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것은 fucking으로 총 354번 사용되었다. 출현빈도 기준으로 상위 10개 비속어로는 fuck(156), shit(s)(83), Jesus(24), motherfucker(s)(17), fucked(16), ass(10), dick(8), bitch(8), jerk(8)이 포함되었다. 이들 10개 단어 중에서 Jesus와 bitch를 제외하면 8개 비속어는 모두 섹스나 성기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비속어 중에서 상위 3개 단어인 fucking(43.81%), fuck(19.31%), shit(s)(10.27%)가 약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비속어 목록

비속어	빈도수	비속어	빈도수
fucking	354	cocksucking	3
fuck	156	cunt	3
shit(s)	83	damn	3
Jesus	24	tits	3
motherfucker(s)	17	gay	3
fucked	16	fucker(s)	3
ass	10	shitty	2
dick	8	twat	2
bitch	8	blowjob	2
jerk	8	horny	2
bullshit	8	fucks	2
asshole(s)	7	fag(s)	2
goddamn	6	piss(es)	2
faggot	6	bitching	1

prick(s)	6	vagina	1
hooker(s)	6	bastards	1
cock(s)	6	fuckface	1
hell	5	fuckheads	1
whore	4	fuckety	1
fucksville	4	fuckload	1
pussy	4	crap	1
motherfucking	4	crappy	1
balls	4	hellhole	1
sex	4	penis	1
suck(s)	4		
cocksucker	3		

* 괄호 안의 (s)와 (es)는 해당 비속어의 복수형과 3인칭을 포함한 경우이다.

앞서 핑커가 제시한 비속어의 5가지 사용 유형을 바탕으로 본 영화에 사용된 비속어의 사용 유형을 분석했다. 아래 <표 6>은 위의 <표 5>에 제시한 비속어들이 사용된 각 문장을 분석해, 이들 비속어가 어떤 유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총 808회에 달하는 비속어 사용에서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439회로 전체에서 약 55%를 차지했고, 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125회로 약 15%,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로 사용된 비속어는 총 94회로 약 12%, 관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85회로 약 11%, 그리고 감정의 해소 차원에서 사용된 비속어는 65회로 약 8%를 차지했다.

<표 6> 비속어 사용 유형 분석

	묘사용 비속어 (descriptive swearing)	관용적 비속어 (idiomatic swearing)	모욕적 비속어 (abusive swearing)	강조용 비속어 (emphatic swearing)	정화용 비속어 (cathartic swearing)
fucking	6(1.70)	1(0.28)	0	347(98.02)	0
fuck	15(9.61)	28(17.95)	20(12.82)	69(44.23)	24(15.38)
shit(s)	24(28.92)	26(31.32)	15(18.07)	7(8.43)	11(13.25)
jesus	0	0	0	0	24(100)
fucked	1(6.25)	15(93.75)	0	0	0
motherfucker(s)	0	0	17(100)	0	0
ass	4(40.00)	6(60.00)	0	0	0

dick	7(87.50)	0	1(12.50)	0	0
bitch	0	2(25.00)	6(75.00)	0	0
jerk	5(62.50)	0	3(37.50)	0	0
asshole(s)	2(28.57)	0	4(57.14)	0	1(14.29)
bullshit	7(87.50)	0	1(12.50)	0	0
goddamn	0	0	0	6(100)	0
faggot	0	0	6(100)	0	0
prick(s)	0	0	6(100)	0	0
hooker(s)	6(100)				
cock	6(100)	0	0	0	0
hell	1(20.00)	1(20.00)	0	3(60)	0
whore	2(50.00)	0	2(50.00)	0	0
fucksville	4(100)	0	0	0	0
pussy	1(25.00)	0	3(75.00)	0	0
motherfucking	0	0	1(25.00)	3(75)	0
balls	2(50.00)	2(50.00)	0	0	0
sex	4(100)	0	0	0	0
suck(s)	3(75.00)	1(25.00)	0	0	0
cocksucker	0	0	3(100)	0	0
cocksucking	0	0	0	3(100)	0
cunt	2(66.67)	0	1(33.33)	0	0
damn	0	0	0	0	3(100)
tits	3(100)	0	0	0	0
gay	3(100)	0	0	0	0
shitty	2(100)	0	0	0	0
twat	2(100)	0	0	0	0
blowjob	2(100)	0	0	0	0
horny	2(100)	0	0	0	0
fuckers	0	0	2(75.00)	0	1(25.00)
fucks	0	1(50.00)	1(50.00)	0	0
fag(s)	2(100)	0	0	0	0
piss(es)	1(50.00)	1(50.00)	0	0	0
bitching	1(100)	0	0	0	0
vagina	1(100)	0	0	0	0
bastards	1(100)	0	0	0	0
fuckface	0	0	1(100)	0	0
fuckheads	0	0	1(100)	0	0
fuckety	0	0	0	0	1(100)
fuckload	0	1(100)	0	0	0
crap	1(100)	0	0	0	0

crappy	0	0	0	1(100)	0
hellhole	1(100)	0	0	0	0
penis	1(100)	0	0	0	0
합계	125(15.47)	85(10.52)	94(11.63)	439(54.33)	65(8.04)

* 괄호 안의 숫자는 퍼센티지를 나타내며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값이다.

4.2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

앞서 분류한 총 50개의 비속어가 사용된 총 798개의 문장을 AntConc를 이용해 영어 원문을 추출한 후, 각 문장이나 구에 해당하는 번역결과를 비교 분석해 사용된 비속어 번역전략을 <표 3>에서 언급한 페더슨(Pederson 2011)의 7가지 전략에 따라 분석했다. 아래 <표 7>은 7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한 번역전략 분석 예시를 보여준다.

<표 7>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 예시

번역전략	예제	
보존 (retention)		해당사항 없음
구체화 (specification)		해당사항 없음
직역 (direct translation)	1) I'm a sex addict, too. 2) She even hired a gay butler.	1) 나는 섹스 에도 중독됐고요 2) 게이 집사도 고용했어
일반화 (generalization)	See, money doesn't just buy you a better life, better food, better cars, better pussy .	돈 있어봐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차 굴리고 예쁜 계집 얻고 훌륭한 남자로 변신도 가능해
대체 (substitution)	1) You want to know what money sounds like? Go to a trading floor on Wall Street. "Fuck" this, "shit" that. "Cunt," "cock," "asshole." 2) Pick up the cocksucking phone!	1) 돈의 소리를 알고 싶으면 월 스트리트 거래소에 가봐 망할, 염병, 니미, 쌍, 쓰벌 2) 전화기 들어, 개자식아!

생략 (omission)	1) I fucking love that. 2) I want to. That's not why I do it. I do it 'cause I fucking need to.	1) 맘에 들어 2) 단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공식등가 (official equivalent)		해당사항 없음

4.2.1 사용되지 않은 번역전략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존(retention), 구체화(specification), 공식 등가(official equivalent)는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결과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전략에 해당한다. 첫 번째, 보존(retention) 번역전략은 7가지 번역전략 중에서 가장 원천어 중심적인 전략이다(Pederson 2005). 목표 언어에 마땅한 어휘나 표현 방법이 없을 때 유용한 보존전략은 쉽게 말해 목표언어권에 존재하지 않는 원천어권의 어휘, 구, 개념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어 중심의 번역전략이 유효한 경우는 그대로 원문의 어휘를 남겨두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인데, 비속어 번역에서는 원래 원문의 비속어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의 번역전략은 번역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체화(specification) 전략은 보존전략과 유사하게 원천어의 요소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 목표언어권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나 정보 등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전략 역시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의 비속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자막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 방법으로는 번역의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 공식 등가(official equivalents) 전략은 직역이나 보존 번역전략과 마찬가지로 원천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이점이라면 목표문화권에서 널리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번역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고유명사 특히 지명이나 국가명을 번역할 때 목표문화권에서 표준화된 표기 방식을 그대로 옮기는 형식이다. 비속어 번역에서 이러한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등가 어휘, 등가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전략 역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4.2.2 사용된 번역전략

아래 <표 8>은 분석대상 영화인 The Wolf of Wall Street의 자막 텍스트를 영어 원문과 대조해 사용된 번역전략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가지 번역 전략 중에서 앞서 언급한 3가지(보존, 구체화, 공식 등가)를 제외하고, 직역, 일반화, 대체, 생략 번역전략이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은 대체 전략으로 전체 비속어 중 약 56%가 이 방법으로 번역되었고, 다음으로 생략 전략은 41%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은 97.65%로 대부분의 비속어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번역된 셈이다.

<표 8>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결과

	보존	구체화	직역	일반화	대체	생략	공식 등가
fucking					119	235	
fuck			10		115	31	
shit(s)					67	16	
Jesus					7	17	
fucked					15	1	
motherfucker(s)					13	4	
ass					10		
bitch					6	2	
asshole					6	1	
dick					8		
jerk					8		
bullshit					4	4	
goddamn					2	4	
faggot					4	2	
prick(s)					4	2	
cock(s)					6		
hooker(s)					6		
hell					3	2	
whore					4		
fucksville					1	3	
pussy				2	1	1	

motherfucking				2	2	
balls				3	1	
sex		4				
suck(s)				4		
cocksucker				3		
cocksucking				2	1	
cunt				2	1	
damn				3		
tits				3		
gay		3				
shitty				1	1	
twat				2		
blowjob				2		
horny				1	1	
fuckers				2	1	
fucks				2	0	
fag(s)				1	1	
piiss(es)				2		
vagina				1		
bastards					1	
fuckface				1		
fuckheads				1		
fuckety					1	
fuckload				1		
crap				1		
crappy				1		
hellhole				1		
bitching				1		
penis				1		
합계		17 (2.10)	2 (0.25)	453 (56.06)	336 (41.58)	

* 괄호 안의 숫자는 퍼센티지를 나타내며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값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존, 구체화, 직역, 공식 등가 전략은 원천언어 위주의 번역 전략으로 번역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국화(foreignization) 방법에 해당하고, 일반화, 대체, 생략 전략은 번역사의 지식, 경험, 주관적 판단 등에

따라 번역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국화(domestication) 방법에 해당한다. 베누티(Venuti 1995)는 목표 언어로 된 텍스트의 이국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자국화 방법에 대해 목표 언어의 문화적 요소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원문에 없매이지 않고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며 번역사의 역할이 부각되는 자국화 노력은 오히려 환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원천 언어 중심의 보존, 구체화, 직역, 공식 등가 전략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목표 언어 중심의 일반화, 대체, 생략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일반화 전략은 원천언어에서 사용한 어휘, 구, 개념보다 일반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바꾸는 번역전략이다. 전체 808회에 달하는 비속어 용례가 일반화 방법으로 번역된 경우는 pussy가 사용된 2회에 불과하다. 아래 원문 1과 2는 영화에서 문란한 성생활과 방탕한 물질주의에 물든 인물들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은 얻을 수 있다는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여성 폄하적인 의미로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pussy를 사용했다. 이를 자막으로 처리할 때 성기를 지칭하는 우리말 어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상위의 개념이면서도 일반적인 수준의 어휘인 ‘계집’과 ‘여자’로 바꿔 번역했다.

(원문 1) See, money doesn't just buy you a better life, better food, better cars, better **pussy**. It also makes you a better person.
 (번역 1) 돈 있어봐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차 굴리고 **예쁜 계집** 얻고 훌륭한 남자로 변신도 가능해

(원문 2) Getting any **pussy** with that thing or what?
 (번역 2) 그걸로 **여자** 꼬셔?

원문에 등장하는 요소보다 상위어(hyponym)를 사용해 번역 텍스트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화 전략은 단지 2회, 즉 거의 무시할 수준에 불과한 0.25% 정도만 사용되었는데, 이는 비속어의 경우 상위어, 하위어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대응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일 수 있다. 아울러 일반화 전략과 대체 전략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연구자

에 따라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소지도 다분하다. 페더슨(Pederson 2011)도 자신이 분류한 전략의 중첩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원문에 등장하는 pussy와 같은 비속어를 여자 또는 계집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막에서 비속어 사용 금지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비속어 자체가 주는 저속함이나 상스러움을 자막에 그대로 옮겨서 영화를 관객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문자로 표현된 욕설과 같은 구어로 표현된 비속어보다 더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더 저속하고 더 상스럽게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호트(Hjort, 2006)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호트는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서 구어체보다 문어체로 된 욕설이 훨씬 강도가 세다고 생각하는 번역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체에서 약 2% 수준에 그친 직역(direct translation) 전략은 총 808회 비속어 용례에서 17회 사용되었다. 직역 전략은 회사, 공공기관, 기계장비 등의 명칭을 번역할 때 흔히 사용된다(Pederson 2005). 쉽게 말하면 이러한 고유명사의 원래 발음을 목표 언어의 문자로 옮기는 일종의 음차 번역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팬섬(fansub)에서 흔히 이러한 전략으로 비속어를 그대로 자막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뿌리가 유사하거나, 알파벳 문자를 공유하는 언어 문화권의 경우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다. 영어와 한국어처럼 거리가 먼 언어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자막으로 번역을 처리할 때 팬섬의 경우에서처럼 영어 비속어의 발음을 아래 번역 3에서처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처리하는 때도 있다.

(원문 3) Sir, we need to ask you some questions. Are you fucking kidding me? **Fuck** you!

(번역 3)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빠큐!**

(원문 4) I'm a sex addict, too. Well, there are worse things to be addicted to than sex.

(번역 4) 섹스에도 중독됐고요. 섹스보다 나쁜 것도 많은 걸 뭐

(원문 5) She even hired a gay butler. This guy was smart,

sophisticated, professional.

(번역 5) 게이 집사도 고용했어 똑똑하고 세련되고 전문적인 훌륭한 집사였지

fuck의 경우, 총 154회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fuck이 동사로 사용된 경우는 49회이며, ‘fuck you’의 형태로 총 17회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닥쳐’ ‘꺼져’ ‘이게 죽을라고’ ‘엿 먹어’로 번역되거나 번역에서 생략된 경우를 제외하고 9번 ‘빠큐’로 번역했다. 명사로 사용된 fuck이 들어간 문장 중에서 ‘what the fuck is that, you know’만이 ‘빠큐’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총 10회에 걸쳐 영어의 소리를 그대로 옮기거나 흉내 내는 방식의 직역(direct translation) 전략이 사용되었다.

번역 4와 5의 sex와 gay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한국어처럼 차용해서 사용하는 외래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래어는 원래 외국어이지만, 자주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굳어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기보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ex는 총 4회, gay는 총 3회 등장하는데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이는 번역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볼 수도 있다. 직역 전략은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채, 원천언어에 담긴 의미 전달을 위한 노력이나, 목표언어 문화권 관객의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Pedersen 2005: 5), 마치 번역사가 아무런 노력이나 전략 없이 번역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다.

다음은, 자막 번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략(omission) 전략으로 전체 전략 중 약 42%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생략 전략은 아주 편리하면서도 보기에 따라 무책임한 번역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일반 문서번역이나 전문서적 번역에서는 생략 전략은 자주 사용되지 않고, 권장할 번역전략이라 보기 어렵지만, 영상물의 자막 번역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전략이다. 영상물의 자막 번역에서 번역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메시지를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막은 두 줄 이하, 한 줄당 공백 포함 16자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박명수, 2016). 구어체 대사는 화면에 제시되는 자막보다 속도가 빠르고, 자막을 읽는 속도는 영상물 속의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의 속도보다

느려, 실제 대사와 자막이 화면에 동시에 뜨도록 처리하는 싱크(synchronization) 작업이 원활히 되려면 압축, 응축, 생략은 절실히 필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생략(omission)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된 비속어는 **fucking**으로 전체 354회 등장하는데 약 66%가 번역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fucking**은 주로 강의어(intensifier)로 다른 품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아래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식하거나 강조하는 품사와 상관없이 문장 내 어느 위치에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o**, **very** 등과 같은 강의어는 문법적으로 허용 범위가 한정적인 점과 다소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very**는 동사 앞에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없지만, **fucking**의 경우에는 7, 8번 원문에서처럼 동사의 의미도 강조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원문 6) You can save the **fucking** spotted owl with money.

(번역 6) 멸종위기의 올빼미도 구할 수 있지

(원문 7) I do it 'cause I **fucking** need to.

(번역 7)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원문 8) Don't **fucking** tell Susan.

(번역 8) 우리 마누라한테 말하지 마요

(원문 9) What a **fucking** idiot!

(번역 9) 병신 새끼!

(원문 10) Are you **fucking** serious?

(번역 10) 지금 장난하나?

(원문 11) Absolutely **fucking** not.

(번역 11) 절대 아니지

(원문 12) Right, who **fucking** wouldn't?

(번역 12)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위의 모든 예시에서처럼 **fucking**은 뒤에 이어 나오는 품사들의 의미를 강조

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문법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되었다. 그런 이유로 자막 번역에서 약 66%가 생략 전략을 통해 처리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략 전략은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막 번역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이다. 레피할메(Leppihalme 1994)는 생략 전략은 번역사의 책임 있는 선택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무책임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ucking**의 경우에는 그 의미와 역할이 너무나 명확하므로, 다른 모든 등가어 후보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책임 있는 번역전략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번역전략인 대체(substitution)⁶⁾ 방법은 총 808회의 비속어 어휘나 표현 중 약 56%에 사용되었다. 대체는 목표언어 중심적인 전략으로 목표 언어 문화권의 입장에서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원천언어의 어휘나 표현을 목표언어의 어휘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 중에서 번역사의 지식, 경험, 주관적 판단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번역사의 역할 중심의 적극적인 번역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예시는 출현빈도가 가장 많은 비속어인 **fucking**과 **fuck**이 사용된 경우이다.

(원문 12) Is this a great **fucking** company or what?

(번역 12) 정말 끝내주는 회사 아닙니까?

(원문 13) And don't pick up your **fucking** head until 1:00.

(번역 13) 대가리 쳐들지마

(원문 14) What the **fuck** are these imbeciles doing?

(번역 14) 저 등신들이 뭐 지랄이래?

(원문 15) No one who's married is **fucking** happy.

(번역 15) 결혼하고 행복한 놈이 어딴어?

6) 페더슨(Pederson 2005)은 문화소(extralinguistic culture-bound references/ ECR) 번역을 위한 대체 전략을 목표언어권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원천언어의 문화소를 목표언어의 친숙한 문화소로 대체(cultural substitution)와 문화소 자체를 빼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기(paraphrase)로 구분했다.

번역 12와 13은 원문에서 사용된 *fuck*의 형용사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문맥과 상황에 적절한 우리말로 대체한 경우이다. 먼저 *fuck* company에서 *fuck*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이를 *good, great, nice, wonderful* 정도의 맥락에서 영화 속 주인공의 평상시 말투에 걸맞는 “끝내주는 회사”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다. *fuck*이 이러한 수식으로 이어 등장하는 어휘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은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비록 비속어가 들어간 표현이지만 다소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여서 명사 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적절한 형용사, 부사로 대체하는 것이 본 영화 분석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fuck*을 ‘끝내주는’ ‘기찬’ ‘엄청’ ‘천하의 나쁜’ ‘망할’ ‘빌어먹을’ ‘버러지 같은’, ‘무려’ 등으로 대체되었다.

번역 13은 *fuck* head를 화자의 의도, 감정을 고려해 전체 분위기에 맞는 표현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fuck*의 의미가 형용사, 부사 등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수식하는 명사나 형용사로 의미가 전이된 경우인데 그냥 ‘머리’라고 하지 않고 머리를 의미하는 저급한 수준의 어휘인 ‘대가리’로 대체해 의미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속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구 내의 다른 어휘로 의미를 전가해 번역하는 전략이 활발하게 사용된다. 원문 14, 15에서 각각 *fuck*과 *fuck*은 문장 내 동사 부분인 ‘doing’과 주어 명사인 ‘one’으로 비속어의 의미와 감정을 넣어 ‘지랄이래’와 ‘놈’으로 대체했다.

번역 16은 원문에 사용된 *fuck*을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언어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문맥에 맞게 대체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는 섹스와 관련된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원문 16의 경우에도 *fuck*의 ‘성교하다’라는 원래 의미를 ‘따먹다’라는 우리말의 저급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대체했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 자신을 설명하며 언급한 ‘I fuck hookers maybe five, six times a week.’에서 ‘fuck’은 ‘떡을 치다’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했다. 성교의 의미로 사용된 *fuck*은 혼잣말이거나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는 ‘따먹다’라는 말로, 직접 이성에게 사용할 때는 “하다”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대체되었다.

(원문 16) God, help me. How do I **fuck** this girl?

(번역 16) 이 여잘 어떻게 따먹죠?

(원문 17) Hey, **fuck** him. I'm the senior manager, here.

(번역 17) 신경 끊어

(원문 18) - He's got a gun, you fucking idiot!
- **Fuck** his gun!

(번역 18) - 총 가졌어, 등신아
- 알게 뭐야?

(원문 19) Oh, **fuck**. You're sweet.

(번역 19) 뭐 그런 것까지

원문 17과 18은 fuck이 (상대방을) 가혹하게 대하다, 속이다, 학대하다의 의미인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원문 17은 출근 첫째 날부터 욱두문자를 날리며 폭풍 잔소리를 해대는 상사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주인공을 향해 더 높은 직위의 매니저가 한 말이다. ‘무시해버려’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으로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대체되었다. 그래서 번역 17은 폭풍 잔소리를 하는 상사를 무시하라는 뜻으로 ‘신경 끊어’라고 표현했고, 번역 18은 총을 가졌다고 경고를 듣고도 그러거나 말거나의 의미로 ‘알게 뭐야?’로 대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문 19는 감정의 적극적인 표출,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화용 비속어의 예시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탄의 표현으로 비속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어로 이런 상황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모두 대체될 수 있는 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영화의 자막에서 정화용 비속어로 사용한 fuck을 자막으로 허용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젠장’, ‘제기랄’, ‘빌어먹을’, ‘염병할’ 정도로 대체되거나 ‘시불’과 같은 허용되지 않는 비속어를 변형한 경우로 대체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비속어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바 있는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에 등장하는 총 50가지 비속어의 808개 문장을 대상으로 비속어 용례와 비속어 번역전략을 분석했다. 비속어 번역이라는 주제 자체가 다소 거북

하고 곱끄러워 학문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수많은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에 일상적으로 등장하고, 이러한 비속어를 번역하며 고민, 고통에 빠지는 영상 번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적과 마찬가지로(Jay, 2009). 이렇게 다양한 비속어의 용례 분석은 할키(Pinker 2007)의 비속어 5가지 사용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절반이 조금 넘는 약 55%의 비속어는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화와 교제를 하는 대상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의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며, 벌어지는 상황 등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감정의 효과적인 표출 등을 위해 사용한다(Jay et al., 2008). 가장 사용 빈도가 적은 경우는 정화용 비속어(cathartic swearing)로 감정의 해소, 고통이나 나쁜 감정을 감내하는 느낌으로 감탄사처럼 사용되는 경우(Jay et al., 2008; Pinker, 2007)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에서 8%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속어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뱉는 경우보다 강조와 묘사의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을 위해 페더슨(Pederson 2011)이 번역이 쉽지 않은 문화소의 자막번역을 위해 모델로 제시한 7가지 전략(보존, 구체화, 직역, 일반화, 대체, 생략, 공식등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 보존, 구체화, 공식등가는 비속어 번역전략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보존과 구체화 전략은 원천 언어의 요소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 문화권이 아니고, 사용하는 알파벳이 완전히 다른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에는 알맞지 않은 번역전략으로 판단된다.

전체 번역전략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전략은 대체(substitution) 56%, 생략(omission) 41%로 대부분의 비속어 번역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화와 직역 전략은 각각 0.25%, 2%에 그쳤는데, 상위어, 하위어의 개념으로 판단해 원문에 사용된 비속어보다 상위의 일반적인 어휘로 바꿔야 하는 일반화 전략은 적절한 대응어가 부족하거나 문맥에 알맞지 않아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음차번역 방식으로 영어의 발음을 그대로 우리 한글로 자막 처리하는 직역의 경우에도 영어와 한국어처럼

알파벳이 완전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한글로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전략으로 풀이된다. 외래어로 구분되는 sex와 gay가 직역 방식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이는 sex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성교, 성관계 등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고, gay도 동성애자로 표현하는 것이 마치 신문이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줄 뿐, 분석대상 영화인 The Wolf of Wall Street의 난잡하고, 문란하고, 추잡스러운 영화 속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부적절해서 좋은 번역전략이라 보기 어렵다.

가장 빈번히 사용된 생략과 대체 전략은 번역사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자국화 전략으로, 먼저 생략은 41% 사용되었다. 이 전략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첫째, 자막의 시공간적 제약을 들 수 있다. 두 줄 이하, 한 줄에 공백을 포함해서 16자 이하로 구성해야 하는 자막의 특성 때문에 원문의 내용을 100% 그대로 담아낼 수 없어 생략은 불가피하면서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둘째, 욕설 등과 같은 비속어는 어휘와 표현 자체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본능적으로 꺼리는 대상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문장 내 다른 어휘나 표현의 번역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이 가능한 경우라면, 비속어의 의도적인 생략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막으로 허용되는 비속어 관련 표현의 제한이 이유가 될 수 있다. 극장용 영화의 경우 입장부터 철저하게 나이 제한에 따라 관객이 구분되기에 번역에 사용할 수 있는 비속어의 수준이 다소 사실적인 면이 있지만, 인터넷과 케이블 등의 방송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비속어 제약이 심한 편이다. 더 큰 문제는 허용되는 비속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자막으로 방송해서는 안되며... 대사 중 노골적인 욕설이나 직접적인 성애 표현은 의미 전달이 가능한 수준에서 순화하여 표기해야 한다”⁷⁾라는 모호한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런 탓에 제대로 맞갈 스러운 욕스러운 자막이 없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박명수 2016).

대체 번역전략은 56% 사용되었는데, 번역이 원천언어를 목표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면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 넓은 의미에서 번역사는 원문을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8월에 발행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체의 방식은 크게 첫째, 원래 사용된 비속어 품사와 역할을 그대로 살리되 허용되는 비속어 범주 내에서 메시지를 담아내는 방법, 둘째, 비속어의 의미를 문장 내 다른 품사로 전가해서 메시지를 담아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비속어의 등가어(equivalents)가 아주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둘째 방법이 더 적절하고 권장할만한 번역전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문의 품사를 유지하는 방식보다는 원문의 언어적인 품사 기능에 집착하지 않고 의미를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번역사의 지식, 경험, 주관적 판단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맥락에 가장 적합한 대체 등가어를 찾는 일이 모든 번역사의 평생 과업이다. 그러나 단지 욕설과 같은 비속어는 번역의 맛을 제대로 선사하기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다. 욕스러운 자막이 없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욕설, 비속어는 허용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순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인데,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자막으로 허용되는 욕이나 비속어는 ‘젠장’ ‘제기랄’ ‘빌어먹을’ ‘망할’ ‘우라질’ ‘미친놈’ ‘개자식’ ‘옛먹어’ 정도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영어권 영화, 드라마 시청이 일상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많은 비속어에 노출되고 있다. 120편의 미국 영화를 분석한 Jay(1992)는 한 편의 영화당 평균 최소 80개의 비속어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속어의 허용 수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상 번역가의 고충을 더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사실적인 번역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비속어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립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에 영상번역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영상번역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등 좀 더 비속어를 대하는 태도 또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 편의 영화만을 대상으로 비속어를 분석했기 때문에 비속어 영상번역 전략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한 명의 번역사가 한 작업만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밝힌 번역전략에 관한 주장 또한 본 연구에만 국한되며,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번역전략 기준으로 삼은 페더슨의 7가지 번역전략은 자막번역을 위한 번역전략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대체 전략의 경우 하위에 더욱 명확한 세부 전략과 전술에 대한 구분을 통해, 명확한 번역전략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한다.

참고문헌

- 김가희, 박윤희 (2013) 「충실성의 딜레마: 금기비속어 fuck의 번역 양상 및 번역 수용에 관한 설문연구」, 『번역학연구』 14(4): 7-35.
- 도정일 (2016)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서울: 문학동네.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기성 최진실 하지현 전지현 (2017) 「비속어의 나뭇 평가에 대한 계량적 연구」, 『언어』 42(3): 401-415.
- 박명수 (2017) 『코퍼스 언어학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한빛문화.
- 박명수 (2016) 『영상번역 입문』, 서울: 신아사.
- 박성철 Kelpin 최경인 (2017) 「비속어의 번역전략 연구: 한독 영화자막 번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2): 27-55.
- 박효중 (2015)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크라운홍보주식회사.
- 손범규 (2010) 「방송 언어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제5회 국립국어원 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본 방송 언어』 13-26.
- 신기상 (1992) 「우리말 욕설 연구」, 『국어교육』 79: 15-46.
- 양명희 (2011)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111: 57-87.
- 이선영 (2015)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대하여」, 『어문론집』 64: 59-80.
- 장경희 (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401-427.
- 조재범 (2015)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선 (2011)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281-303.
- 한미선 (2012) 「격식변화 측면에서의 금기 비속어 번역의 특징 연구: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77-306.
- 홍종선 (2013)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전지현 최진실 박기성 (2017) 「영상매체 속 비속어 한영번역 양상 및 영어 학습자들의 번역 수용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24(3): 65-87.

- 최진실 (2017) 「자막번역에 나타난 대학생 비속어 사용 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
- 함혜숙 (2011) 『영상 번역가로 먹고살기』, 서울:왓북.
- Andersson, Lars (1990) *Bad Language*, Oxford: Blackwell.
- Andersson, Lars and Trudgill, Peter (1999) *Bad Language*,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Anthony, Lawrence (2018) AntConc (Version 3.5.7) [Computer Software]. Tokyo, Japan: Waseda University, <http://www.laurenceanthony.net/software>
- Bednarek, Monika (2014) A statistical analysis of how much f***ing swearing there is on TV, <http://www.newstatesman.com/culture/2014/04/statistical-analysis-how-much-fing-swearing-there-tv>.
- Cintas, Jorge Diaz and Remael, Aline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 Cruz, Gilbert (2014) ‘Every Single Curse Word in The Wolf of Wall Street: The Fullest Picture’, <http://www.vulture.com/2014/01/wolf-of-wall-street-counting-all-the-curse-words.html>
- Dewaele, Jean-Marc (2004) ‘The emotional force of swearwords and taboo words in the speech of multilingual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5(2): 204-22.
- Fägersten, Kristy (2012) *Who’s swearing now? The social aspects of conversational swearing*,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Hjort, Minna. (2006) ‘Results of the Swearword Questionnaire’, <http://www.mv.helsinki.fi/home/mmhjort/tulokset>.
- Jay, Timothy (2009) *Cursing in America: A psycholinguistic study of dirty language in the courts in the movies, in the schoolyards, and on the streets*. Philadelphia/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04-228.
- Jay, Timothy (1992) The utility and ubiquity of taboo word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2), 153-161.

- Jay, Timothy & Janschewitz, Kristin (2008) 'The pragmatics of swearing',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4: 267-88.
- Leppihalme, Ritva (1994) *Culture Bumps: On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English Department Studies 2.
- Leppihalme, Ritva (2011) "Realia".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2*,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26-130.
- McEney, Anthony and Xiao, Zhonghua (2004) 'Swearing in modern British English: the case of fuck in the BNC', *Language and Literature* 13(3): 237-70.
- Mohr, Melissa (2013) *Holy Sh*t: A Brief History of Swear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dergaard-Larsen, Birgit (1993) 'Culture-bound problems in subtitling.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 (1): 207-242.
- Pedersen, Jan (2005) How is Culture Rendered in Subtitles? EU-High-Level. Scientific Conference Series, <http://www.euroconferences.info/proceedings/2005>.
- Pedersen, Jan (2011) *Subtitling Norms for Televis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inker, Steven (2007) *The Stuff of Thought: Language as a Window into Human Nature*, New York: The Penguin Group.
- The Wolf of Wall Street (n.d.) In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he_Wolf_of_Wall_Street_\(2013_film\)](http://en.wikipedia.org/wiki/The_Wolf_of_Wall_Street_(2013_film)).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Vinay, Jean-Paul and Jean Darbelnet (1958/2000)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84-93.
- Wickman, Forrest (2014) 'Is Wolf of Wall Street Really the Sweariest Movie of All time? A Slate Investigation', http://www.slate.com/blogs/browbeat/2014/01/07/wolf_of_wall_street_sets_f

[_word_record_we_counted_every_last_f_bomb_in_the.html](#)

Zanettin, Federico (1998) 'Bilingual comparable corpora and the training of translators', *Meta* 43(4): 616-630.

분석대상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 - 구글 무비 웹페이지에서 유료로 구입,
<https://play.google.com/movies>

[Abstract]

**Analyzing Translation Strategies of
Swear words used in Subtitle Translation:
focusing on The Wolf of Wall Street**

Park, Myongsu
(Sangmyung University)

This paper aimed at 1) analyzing the frequency and usage of swear words used in the movie of The Wolf of Wall Street which once set a new Guinness World Records for most swearing in one film and 2) investigating the translation strategies used in subtitling swear words in L2 of Korean based on the Pederson's seven strategies. The movie was found to have used 50 different kinds of swearwords among which fucking topped the list with the frequency of 354, followed by fuck, shit(s), Jesus, motherfucker(s), fucked, ass, dick, bitch, jerk, and bullshit. Analyzing a total of 798 sentences of the movie, the researcher analyzed the translation strategies by the seven strategies: retention, specification, direct translation, generalization, substitution, omission, and official equivalent. The four strategies—retention, specification, and official equivalent—were never used in translation while the three strategies of substitution, omission, and direct translation were used in translating the target swearwords.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translation strategy was least used compared with the omission and substitution, which can be explained as the direct translation often relies on a simple rendering of source language pronunciation into the target language and the strategy appears inappropriate for languages with totally different alphabets including English and Korean. Both substitution and omission strategies accounted for around 97% of all the translation

strategies. The researcher suggested what would be necessary for more authentic and natural subtitles of swearwords from English into Korean such as a need to set up more realistic and authentic rules and regulations on a permissible range of swear words in subtitles.

▶ Key Words: corpus, swear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ies, subtitles

▶ 주제어: 코퍼스, 비속어, 영상번역, 번역전략, 자막

박명수

상명대학교 영어권지역학 교수

myongsu@smu.ac.kr

관심분야: 영상번역, 코퍼스 언어학, 사회언어학, 영어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